

분노한 대중의 사회 : 대중 여론으로 읽는 한국 정치

김헌태 지음 | 335쪽 | 15,000원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 컨설턴트
김헌태의 한국 정치 에세이

대중의 입장에서
지난 십년간의 한국 정치와 여론의 흐름을 읽다

급변하는 여론,
이명박 정권하에서 대중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 컨설턴트인 김헌태가 그간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며,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치에서의 대중 여론의 흐름을 분석한 책이다. ‘젊은 세대 여론조사 분석가 1인자’, ‘여론조사의 귀재’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다가 2007년 대선에서는 문국현 캠프에 뛰어들어 동분서주하던 저자가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지난 1년여 동안 현장에서 쌓아 온 여론 분석의 경험과 지식을 엮어 대중 여론 전반에 대한 윤곽을 그려 냈다. 그동안 그가 언론을 통해 내놓았던 여러 가지 분석과 예측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들여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를 정치 엘리트가 아닌 대중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에서 탈출구를 찾는 이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명박의 지지도가 50%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다. 취임 후 백일도 안 되어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고 한때는 한 자릿수 대까지 떨어졌던 일이 엇그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혼란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언론과 지식인들의 해석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중이 보수화되었다는 논의에서부터 이명박 지지층의 공고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허물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불과 몇 달 전의 여론을 생각해 보아도 급격한 분위기의 반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변덕스러운 대중을 보여 주는 것인가, 이명박 지지층의 공고함을 보여 주는 것인가? 이명박은 앞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또다시 불안한 대중 여론의 여파에 휘말릴 것인가? 이런 선부른 예측 이전에 우선 김헌태의 여론 읽는 독법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의 독법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 김헌태가 대중의 생각을 읽는 법!

여론조사 분석은 수치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대중의 신념을 그려 내는 것

사실 대중 여론이 변덕스러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 대중 여론의 지지도 변화도 탄핵을 전후로 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였고,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탄생한 이명박의 지지도 변화 역시 급작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여론은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분열해 왔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거대한 사회경제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계기 없이는 ‘불만’과 ‘분노’를 특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 수치로 나타난 대통령 지지도를 가지고 대중 여론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이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작은 계기 하나만으로 급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가 이런 여론 분석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대중주의에 입각한 일관된 관점과 긴 호흡의 중요성이다. 여론 분석가는 수치 분석가가 아니라 대중의 입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일관되게 해석하는 ‘해석가’이다. 언론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한 장의 사진처럼 특정 시점에 정지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온 대중의 생각의 궤적의 일부이며, 어느 한순간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시점의 여론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이를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전체 대중 여론의 일부로서 해석해야 한다. 이 책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의 출발에서부터 한미 FTA, 촛불, 그리고 노무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정치의 주요 국면들에서 나타난 대중 여론을 읽어 내면서 대중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 노무현과 이명박은 닮은꼴?

대중 여론에 어두운 정치가들의 위기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 모두 L자형 지지도 변화를 보였다는 데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그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양극화 상황 속에서 ‘민생’을 외치는 대중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을 유지했던 두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노무현 정권의 경우 분양 원가 공개 백지화, 보수 언론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과장론,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하며 좌측 압박이론을 쫓아 우회전한 행보를 보이면서 양극화와 고용 불안 등으로 괴로워하는 지지층의 민생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민생 없는 개혁’을 실시한 것이 최대 실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안정, 사교육비 절감,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대중 여론의 요구를 무시한 채 경기 부양과 개방 촉진 등의 거시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골몰했으며, 교육 정책이나 세금 정책 등에서도 그 수혜자가 기업이나 부자들, 상류층에만 해당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명박과 대중 모두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

게다가 이명박의 지지 기반 역시 노무현 정권 못지않게 취약하다는 것 역시 이명박 정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도덕성 문제로 인해 초기에 지도자로서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데다, 득표율 역시 노무현의 득표율보다 많지 않았다. 즉, 이명박 정권은 전체 유권자의 30%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으며, 지지층 중에서도 이명박에 대한 고정 지지층의 비율은 낮다. 여기에는 '좌파 정부' 종식을 목표로 이명박을 찍은 층과 박근혜 지지층이라는 이질적 가치를 지닌 층의 지지까지 포함된다.

● 문제는 경제다! 그러나 어떤 경제?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양극화 경제. 저자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 대북관이지만, 실제 대중 여론의 흐름에서 이 문제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일례로 노무현에 대한 보수 진영의 색깔론에 입각한 공격이 큰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이나 2007년 대선에서 민주화 세력이 집착했던 '평화 체제' 이슈 역시 대중의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는 남북 중심 체제 대립에서 사회경제적 계층 대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념 지형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요구에서도 대중은 단순히 '성장의 추억'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주목해 볼 만하다. 현재 한국 사회의 대중은 생각보다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증세를 통한 복지, 부에 대한 세금 중과, 재벌 개혁 등 경제적 시안에서 의외로 진보적인 여론 조사 결과 분석을 근거로 저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중 여론의 간극에 대해 이야기한다.

● 대중을 대변하지 않는 대의 정치의 미래는 어디에? 정치권이 살 길은 분노한 대중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뿐

저자는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국의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중들은 자신들을 위한 정치는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 민주화 세력의 지난 10년간은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된 시대였다. 이명박 정부는 나라가 잘되려면 능력 있는 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력하면 앞선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도, 뇌물과 연줄 없이 정직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지금의 한국 대중에게는 없다."

그렇다고 저자가 정당정치라는 대안을 놓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정치에 대한 희망은 대중 여론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대중이 지지할 만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데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이다.

책 속에서

“이 책은 한국 대중의 생각을 읽으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여론조사이다. 언론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한 장의 사진처럼 특정 시점에 정지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론은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대중의 생각의 궤적이므로 어느 한순간도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의 생각은 그들의 삶의 조건에 상응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거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조건에서 모습을 드러낸 여론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이를 전체 대중 여론의 일부로서,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변은 없었다.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대세론을 앞세운 이명박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그간의 경험도 지난 대선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았다. 곧이어 치러진 총선에서도 보수압승 구도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지난 대선과 총선의 본질적 구도가 집권 세력인 ‘민주화 정치 세력’에 대한 대중의 심판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는 대중들의 ‘오로지 경제’에 대한 집착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오직 경제를 외치는 대중들의 아우성과 더 이상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의 무능 한 가운데서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주겠다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부터 대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그것은 민주화 세력의 기나긴 패배의 시작이자 대중의 끊임없는 저

항과 분열의 시작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앞날 역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 주고 있었다.”

“대중은 분노한다. 이미 자신들을 위한 정치는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 노력하면 앞선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도, 뇌물과 연줄 없이 정직하게 살 수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지금의 한국 대중에게는 없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무력감이 바로 한국 대중이 느끼는 분노의 본질이다.

분열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는 이미 불신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나라가 잘되려면 능력 있는 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넘쳐흐르지 않은 지 오래다. 지난 10년은 잘사는 사람만이 더 잘살게 된 시대였다. 대중들은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온기가 위에서 아래로는 전해지지 않음을 경험했다. 거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대중의 한숨은 늘어만 갔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자신들의 근원인 대중과 멀리 떨어져 있다. 정치가 대중을 경멸하고, 대중도 정치를 경멸한다. 정당정치, 대의정치는 그래서 한국에서 붕괴되어 간다. 승자와 강자만이 정치에 접근할 수 있다. 더 이상 대중은 정치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 자신들을 위한 정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 이르렀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세상이 올 기미는 도통 없다. 과연 대중을 위한 정치는 없는 걸까?”

지은이 김헌태는



©오마이뉴스

1995년부터 리서치 앤 리서치, 한국리서치 등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다. 2002년 TNS 한국법인의 정치사회 부문 본부장을 역임한 후, 2003년에는 여론 전문 연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를 설립했다. 이후 2007년까지 동 기관의 소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언론을 무대로 칼럼니스트 및 해설자로 활동했다. 정치 컨설턴트로서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전략 책임자로 참여해 왔으며, 2007년 대선에서는 문국현 후보 캠프의 수석 전략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선 이후 2008년에는 미국 대선 과정을 수개월에 걸쳐 참관한

후 기고 활동을 했다. 현재 인하대 언론정보학과에서 조사방법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강의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중 정치 운동을 고민 중이다. 저자는 이 책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책의 구성

1부는 외환 위기 이후에 나타난 대중 여론의 큰 변화, 그리고 민주화 정치 세력의 몰락 과정, 대세 후보 이명박의 사상 초유의 고공 행진, 그리고 대선 이후에 나타난 촛불 집회

와 이명박 정부의 위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정국까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대중 여론의 실체를 시점별로 설명하고 있다. 2부에서는 한국 대중을 움직이는 거대 신념 구조를 5가지 부문 — 지역주의, 세대와 연령, 이념, 지도자, 공동체 — 으로 나누어 이해해 본다.

프롤로그

1부 대중의 분열과 저항

1장 민주화 세력의 몰락

경제 위기로 빚바랜 남북 화해 시대 / 외환 위기 이후 시작된 양극화 사회의 전조 /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 정부의 불안한 출발 / 색깔 논쟁에 휘말린 노무현 정부 / 탄핵 정국 승리의 함정 /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노무현 정부의 한계 / 민생 없는 개혁에 집착한 민주화 세력의 패착 / 경제문제가 사회문제로 / 공동체 불안의 또 다른 진원, 비정규직 / 부자가 죄인이 되는 사회 / 성장이 문제냐, 분배가 문제냐 / 참여정부 발목 잡은 열린우리당 / 민주화 세력의 분열, 그리고 패배의 시작 / 양극화에 눈 돌린 노무현 정부, 때는 이미 늦었다 /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한미 FTA / 대중, 민주화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접다 / 부동산 문제,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린 상징적 악재 / 복핵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대중 여론

2장 2007년 대선을 말한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 '성공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한 이명박 / '이명박 대세론'이 등장하기까지 / 뚝심의 박근혜, 오르지는 않아도 내려가지 않는다 / 개헌, 무위로 끝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 / 한미 FTA, 배고픈 대중의 뜨거운 감자 / 무능한 공룡 정당의 자충수, '대통합' / 제3후보 등장하다 / '그들만의 진보', 민노당의 뼈아픈 패배 / '오로지 경제'의 요구에 묻혀 버린 도덕성 시비 / 외면 받은 돌발 변수,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 범여권의 부질없는 막판 카드, '정·문 단일화' / 절망한 대중의 마지막 지푸라기, 이명박

3장 이명박 시대, 위기의 대중

생각 이상으로 취약한 이명박 대통령 지지 기반 / 출발부터 눈총 받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 / 반감과 저항을 부르는 '두고 봐라' 소통 방식 / 이명박 정부와 배고픈 대중의 '잘못된 만남' / 이명박 시대의 핵심 관

전 포인트, 보보 갈등 /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견제 세력, 친박 / 민주당, 심판받다 / 새로운 삼당 구도의 부활, 충청 기반의 자유선진당 탄생 / 민노당의 분열 / 문국현만 남은 창조한국당 / 18대 총선, 이번 없는 보수의 압승 / 특권층 중심 경제에 대한 반감의 확산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대충들의 전조 / 생존을 위한 대중 분열의 시대 / 동등이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 현대 정치사의 비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 이명박 정부의 미래

2부 대중 여론 읽기

4장 지역주의

“고향 빼면 뭐가 남는데?” / 지역주의는 정말 잘못된 것인가? / 박정희 패러다임과 지역 맹주 체제의 탄생 / 지역주의를 존속시키는 다양한 힘들 / 광주는 왜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나? / 영호남 민주화 세력의 분열 / 연고적 지역주의에서 이념적 지역주의로 / 한국 정치,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5장 연령과 세대

나이가 사람을 바꿀까? 경험이 사람을 바꿀까? / 산업화 세대: 반공과 성장 가치 중심 세대 / 전후 베이비붐 세대: 이념적 특성이 모호한 정치적 유랑민 / 386 운동권 세대: 민주화 가치의 중심 / 소통 세대: 광장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 / 낡은 정치와 새로운 대중의 단절 / 대중은 조변석개하지 않는다 / 여론 급변의 장본인, 중간 지대 ‘유랑민중’ / 누가 노마드층을 움직이는가?

6장 이념

1. 한국의 보수와 진보, 너희는 대체 누구냐?

보수와 진보로 대중을 나눌 수 있을까? 왜곡된 보수-진보 구도: 산업화 대 민주화 / 산업화 정치 세력과 민주화 정치 세력의 형성 과정 / 산업화 대 민주화 대립 구도, 여전히 유효한가? / 보수답지 않은 보수와 진보답지 못한 진보

2. 반공도 친북도 아닌 한국인의 안보관

회미해져 가는 반공의 시대 / 대중적 가치 교체: 냉전 반공에서 평화공존으로 / 올드 보이들의 달콤한 추억: 좌파 낙인찍기 / 한국 대중이 원하는 것은 불안 없는 평화일 뿐 / 한국 대중의 대북관은 ‘대략 무관심’ / 미국, 상전이나? 우방이나? / 보수 진영과 미국의 짐: 여전히 반일 감정 / 중국과 미국의 호감도는 반비례 관계?

3. 경제, 정치의 중심이 되다

한국에 성장 중심 경제 외의 논리는 없다 / 거시 지표에 가려진 양극화 / 고도성장의 추억: 성장이 경제다 / 성장의 위기냐? 분배의 위기냐? / 분배 없는 성장의 위험성

7장 지도자

1. 나라님 정서의 정체

가물어도 홍수가 나도 모는 것은 대통령 닷 / 한국의 대통령은 항상 뒤끝이 안 좋다? / 대통령 지도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 성과, 악재 그리고 소통 / 노무현 정부부터 나타난 L자형 지도도의 정체 / 양극화 시대의 대통령, 성공할 수 있을까?

2. 죽은 박정희가 한국 대중을 움직인다

한국 대중의 박정희 신드롬과 엇갈리는 평가 / 대중 여론에서 발견되는 ‘인기 있는 독재’의 비밀 / 보수 진영의 우상화가 박정희 신드롬을 만들었을까? / 박정희식 개발독재, 다수 대중의 동의를 획득한 첫 번째 합의 모형 / 이명박 정부,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리나?

8장 공동체

1.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누가 시장주의를 위협하는가? / ‘투명 기업’과 ‘공정 경제’ 선호가 반시장주의? / 부자가 존경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시장주의가 꽃필 수 있을까?

2.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 불안한 공화국

생존에 매달리는 한국 대중, 변화와 도전을 외면하다 / 우리는 과연 개방할 준비가 되었을까? / 공동체의 행복은 최우선 가치 / 위기의 공동체, 대한민국

결론 대중의 미래

한국 대중, 양극화로 분열하다 / 생존을 위해 도처에서 싸우다 / 적선이 아닌 정의를 요구하다 / 탐욕스러운 엘리트가 공동체 최대의 적이다 / 합의하지 못하면 함께 죽는다